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분쟁에 나타난 상생과 상극

-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 여정의 신학적 재고(삼하 2:1-5:5; 19-20장) -

안한나*

1. 들어가는 말

미국의 대표적인 한 언론 기관이 2019년을 ‘거리 시위대의 해(the Year of the Street Protest)’라 명명할 만큼 지난해 온 세계는 갈등과 대립을 겪었다.¹⁾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기독교 우파 세력이 주축이 된 소위 ‘광장 정치’는 한국 교회가 이 세대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필자는 구약 성서 본문에서 다루지는 지파들 간의 정치적인 소요와 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 국론 분열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정황에 적용될 수 있는 신학적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반목 관계는 왕위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 베냐민 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사울이 전사한 후 다윗을 먼저 왕으로 헤브론에서 추대한 유다 지파와 반복되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1) J. S. Yi and C. Caryl, “The Year of the Street Protest,” *Washington Post*, Dec 10,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19/opinions/global-opinions/2019-was-the-year-of-the-street/>.

1.1. 최근 연구 동향

대략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사무엘하에 나타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립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위 ‘역사적 다윗(historical David)’과 ‘서술된 다윗(narrated David)’의 긴장의 축 사이에서 주로 문예 비평적(literary criticism) 관점이나 사회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 비평적(socio-political/ideological criticism) 관점을 아우르는 흐름에서 전개되어왔다.²⁾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역작으로 J. P. Fokkelman과 R. Polzin의 사무엘하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³⁾ Fokkelman는 그의 사무엘서 해석에서(Part I, III) 언어 및

-
- 2) 사무엘서 해석사에 있어 본문 비평을 중심으로 개진된 역사 비평적인 방법론에 대한 R. Polzin의 회의적인 평가를 참고할 것. 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wo: 1 Samuel*, ISBL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1-17; idem, “1 Samuel: Biblical Studies and the Humanities,” *RSR* 15 (1989), 297-306.
- 3) 예컨대 사무엘서 해석에 주목할 만한 단행본들, Charles Conroy, *Absalom, Absalom!: Narrative and Language in 2 Sam 13-20*, AnBib 8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David M. Gunn, *The Story of King David: Genre and Interpretation*, JSOTSupp 6 (Sheffield: JSOT Press, 1978); Lyle M. Eslinger,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5); P. D. Miscall, *1 Samuel: A Literary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J. P. Fokkelman,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Volume I.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SSN 20 (Assen: Van Gorcum, 1981); *Volume II.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SSN 23 (Assen: Van Gorcum, 1986); *Volume III.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SSN 27 (Assen: Van Gorcum, 1990); *Volume IV. Vow and Desire (1 Sam. 1-12)*, SSN 31 (Assen: Van Gorcum, 1993); Robert Polzin,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wo: 1 Samuel*, ISBL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idem, *David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hree: 2 Samuel*, ISBL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이 외에 성서학계에 내러티브의 문예적 해석이란 새로운 지평을 연 문헌들,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1983); Adele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Press, 1983); M.

구조 등을 포함한 본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예적인 특징을 살피며 주연 및 조연 인물들의 담화(speeches)가 지닌 수사적 기능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⁴⁾ R. Polzin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영향을 받아 특히 등장인물의 ‘담화계획(speech plan)’을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나아가 초기 이스라엘의 내부적 국론 분열을 다윗을 넘어 분단 왕국의 후기 역사의 삶의 자리와 연결 짓는다.⁵⁾ 후자의 경우 근래의 시도는 예후드(Yehud)의 사회적 정황이 어떻게 역대기 저자의 베냐민에 관한 기술을 통해 투영되는지 고찰한 B. D. Giffone의 연구이다.⁶⁾ 저자는 먼저 신명기적 역사

Sternberg,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David Jobling, *The Sense of Biblical Narrative: Structural Analysis in the Hebrew Bible II*, JSOTSupp 39 (Sheffield: JSOT, 1986).

- 4) Fokkelman, *Volume I.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idem, *Volume III.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Polzin 이 지적한 대로 Fokkelman은 본문 뒤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정황을 규명하려 하지는 않는다. Polzin, “1 Samuel 1,” 301-3.
- 5) 예컨대, Polzin은 삼하 11-12장의 사건의 해석에 있어 다윗과 메신저들의 화자의도를 바흐친의 공백이론을 적용해 분석한다.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109-130.
- 6) Giffone이 지적한 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간의 상호 관계 연구는 주로 이스라엘의 기원 및 정체성과 성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e.g., 창세기와 에스더서의 역사적 발전사)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Yigal Levin, “Joseph, Judah and the ‘Benjamin Conundrum,’” *ZAW* 116 (2004), 223-41; Phillip R. Davies, “The Trouble with Benjamin,” in *Reflection and Refraction Studies in Biblical Historiography in Honour of A. Graeme Auld*, ed. Robert Redetko et al., VTSup 113 (Leiden: Brill, 2007), 93-111; Yairah Amit, “The Saul Polemic in the Persian Period,” in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eds. Oded Lipschits and Manfred Oeming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653-58; Nadav Na’aman,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Biblical Israel’ (Part I),” *ZAW* 121.2 (2009), 211-24; (Part II) *ZAW* 121.3 (2009), 335-49; Daniel E. Fleming, *The Legacy of Israel in Judah’s Bible: History, Politics, and the Reinscribing of Tra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Benjamin D Giffone, *‘Sit at My Right Hand’: The Chronicler’s Portrait of the Tribe of Benjamin in the Social Context of Yehud*, LOHB/OTS 628 (New York, NY: Bloomsbury, T&T Clark, 2016), 1-10. 이 외의 베냐민 지파에 대한 국의 연구는 사무엘서 외의 본문에 집중되어 있다. 예. Yitzhak Berger, “The David-Benjaminite Conflict and the Intertextual Field of Psalm 7,” *JSOT* 38.3 (2014), 279-96; Song-Mi Suzie Park, “Left-Handed Benjaminites

(DtrH)에 담긴 사무엘서의 베냐민 족속 이야기를 친(親)사울적 본문층에 친(親)다윗적 본문층이 가미된 문예적 틀 안에서 해석하고 역대기 저자가 그의 독특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신명기 사가와 비교하며 분석한다. 그러나 국내외 학계의 연구 중 사무엘하에 나타난 유다와 베냐민의 대립 관계를 문예적 구조의 결을 따라 통시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⁷⁾ 예컨대 Giffone의 경우 신명기 사가의 베냐민 기술에 있어 유다 지파의 다윗을 지지한 인물과 대적한 인물을 묘사하며 지지 성향을 규정하는 평면적인 해석에 그친다. Fokkelman은 두 지파의 내러티브를 각각 1부와 3부에서 별개로 다루고 있어 통시적인 해석을 시도하지 않는다. Polzin은 나름대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립 관계를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의 구조적 틀에서 언급하지만, 다윗의 통치 기간 중 우리아/밧세바 사건 전과 후의 지파간 세력 다툼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는다. 이쉽게도 Fokkelman과 Polzin으로 대표되는 문예적 접근 방식을 택한 연구의 경우 대체로 다윗이 왕과 아버지로서 역기능을 하게 된 시발점을 우리아/밧세바 사건으로 두며 이 사건 전후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간의 충돌 사건들(삼하 2-5:5, 19-20장) 간의 문예적 연관성을 간과한다. 이는 과거의 성서학계가 R. Rost가 제안한바 왕위 계승 내러티브(Thronfolgegeschichte)의 경계가 사무엘하 9-20장과 열왕기상 1-2 장이라는 가설을 일반적으로 수용했다는 점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⁸⁾ 예외적으로 D. M. Gunn은 Rost의

and the Shadow of Saul,” *JBL* 134.4 (2015), 701-20; Catherine Quine, “Reading ‘House of Jacob’ in Isaiah 48:1-11 in Light of Benjamin,” *JBL* 137:2 (2018), 339-57

- 7)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사무엘서 외의 본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이창엽,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대상 9:35-38, 참조 대상 8:29-32),” 『구약논단』20.2 (2014), 73-93; 김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10 (2001): 85-101. 국내 문예적 방법론을 지향한 단행본으로, 김지찬, 『내러티브 해석학으로 본 사무엘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삼하 2-6장, 13-23장은 생략); 김진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사무엘서』(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1).

양식비평에 근거한 그의 주장을 방법론적인 면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사무엘하를 통시적으로 볼 때 다윗의 ‘이야기’가 오히려 사무엘하 2-4장(2:8 부터 4:12나 5:3까지)에서 시작한다고 보며 사무엘하 9-20장 및 열왕기상 1-2장과의 문예적인 연결성을 주장했다.⁹⁾ 그러나 아쉬운 것은 즉위-반역-계승 (accession-rebellion-succession)이라는 큰 주제적 틀을 사무엘하 2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반영하는 과정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간의 대립이 가진 수사적 기능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¹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대표적인 주석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의 대립 구도에 대한 통찰을 파편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으나 사무엘하 서두와 말미를 장식하는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을 면밀히 비교 대조한 통합적인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이 대두된다.¹¹⁾

-
- 8) Leonhard Rost,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trans. by Michael D. Rutter and David M. Gunn, Historical Texts and Interpreters in Biblical Scholarship 1 (Sheffield: Almond Press, 1926/1982). 소위 왕위 계승 내러티브에 대한 최근 논의는 다음을 참조. John Van Seters, “A Revival of the Succession Narrative and the Case against It,” *JOT* 39.1 (2014), 3-14; Joseph Blenkinsopp, “Another Contribution to the Succession Narrative Debate (2 Samuel 11-20; 1 Kings 1-2),” *JOT* 38.1 (2013), 35-58; Steven L. McKenzie, “The So-Called Succession Narrative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in *Die sogenannte Thronfolgegeschichte Davids: Neue Einsichten und Anfragen*, ed. Albert de Pury and Thomas Römer, OBO 176 (Freiburg, Schweiz: Academic Press, 2000), 123-35.
- 9) Gunn, *The Story of King David*; idem, “David and the Gift of the Kingdom (2 Sam 2-4, 9-20, 1 Kgs 1-2),” *Semeia* 3 (1975), 14-45.
- 10) Gunn, *The Story of King David*.
- 11) 국외 영미권의 대표적인 사무엘하 주석으로는, P. Kyle McCarter Jr., *II Samuel*, AB 9 (New York, NY: Doubleday, 1984); A. A. Anderson, *2 Samuel*, WBC 11 (Dallas, TX: Word Books, 1989); Walter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Robert D. Bergen, *1, 2 Samuel*, NAC 7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2002); Bill T. Arnold, *1 and 2 Samuel*, NIVAC 19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3); Antony F. Campbell S. J., *2 Samuel*, FOTL 8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5); David G. Firth, *1 & 2 Samuel*, AOTC 8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Auld, A. Graeme, *1 & II Samuel*, OTL (Louisville,

이에 필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격화되는 사무엘하 2-5장과 19-20장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상호 본문 간에 교차하는 문예적 요소들을 정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다윗의 우리아/밧세바 사건(11장)을 축으로 볼 때 헤브론에 거하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 후 언약궤를 옮기며(6-7장) 그의 정치 군사적 입지를 확립하는(1-5장, 8-10장) 장면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피해 잠시 마하나임에 있다가 정변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12-20장) 성전의 터가 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얻게 되는(21-24장) 장면은 문예적 병행을 이룬다. 사무엘하의 전반부 및 후반부 모두 베냐민 지파의 친 사울계에 대한 다윗의 처신을 엿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 항거하는 난류 세바(19-20장)를 진압하려는 아미사와 요압의 대결은 아브넬과 그가 옹립한 이스보셋을 처단하려는 다윗 왕정 초기의 요압과(2-4장) 주제적 대칭을 이룬다. 이 중에서 사무엘하 2-5(vv.1-5)장과 19-20장에 표면화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국론적 갈등(19:1-15, 39-43)을 11장에서 신명기적인 왕의 이상형에서 이탈하며 변모하는 다윗을 주제로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결론 부분에서 이 내러티브 독법에서 추출되는 신학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의 여정

2.1.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삼하 2:1-5:5)

2.1.1.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립 관계

사무엘하 도입 부분(2:1-5:5)에서 이스라엘은 격변의 시기를 거치게 된다. 바로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조가 몰락하고 그의 왕권이 유다

KY: WJK, 2011); Craig E. Morrison, *2 Samuel*,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13).

지파의 다윗에게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펼쳐진다. 정치적 지형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러티브 틈새마다 내재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암묵적인 내부적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사무엘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0장까지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들여오며(삼하 6-7장) 그의 정치, 군사적인 세력을 확고히 하기까지(삼하 5, 8-10) 그는 사울에게 속한 반대파 세력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대(禱)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禱, 삼하 7:15; cf. 2:5, 6; 9:1, 3, 7)을 경험하며 상생의 지경을 넓혀갔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을 볼 수 있다.

블레셋을 상대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한 소식(삼상 31:1-2)을 접한 다윗은 전쟁 진영에서 사울의 머리를 전유물로 가지고 달려온 아멜렉 소년을 오히려 쳐서 죽인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다 족속에게 자신이 지은 애가를 가르치게 한다(삼하 1:17-27). 정작 사울 왕조 몰락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다윗 당사자는 오히려 진심으로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에게 충정을 다하는 모습이 부각된다. 그러나 비록 다윗이 사울의 죽음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민심이 유다 지파가 세운 왕으로 넘어오기는 시기상조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며(‘출입하다,’ 삼상 18:13, 16) 승승장구했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면서 나발이 조롱했듯 주군(主君)을 배신한 한 이름 없는 도적 떼의 우두머리(삼상 25:10-11)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된 것을 알 수 있다.

신명기 사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곧이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거 하는 마하나임에 근접한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회유의 제스처를 보낸 것을 기술한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사울의 시체를 거둔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의 기개를 여호와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하하며 자신이 사울을 잇는 적법한 왕임을 은연중 드러낸다(삼하 2:4b-7): “이제 너희는 손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의 집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삼하 2:7)¹²⁾ 그 다음 이어지는 내러티브 단락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이다(삼하 2:8-11). 내러티브의 사건 전개 흐름을 나타내는 와우 연속법(*wayyiqtol*)이 아닌 주어와 동사의 도치로 시작되는 절(לְאִשְׁמֹרֶת לְשָׂאוּל לְקָחָהּ, 삼하 2:8)은 와우 접속사가 강한 부정(“그러나 아브넬은...”)을 지시한다는 면에 있어 이미 사건 종료의 상황을 표현한다(cf. 2 Sam 2:8, NRSV). 즉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 사울에 이어 왕으로 추대된 것을 알리는 전갈을 그의 측사와 더불어 길르앗 야베스에게 보냈을 때엔(삼하2:5) 이미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길르앗을 위시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Morrison이 주장하듯 다윗이 이스보셋의 옹립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에게 보낸 선의의 측사는 실제로 사울 가(家)에 향한 본격적인 다윗의 정치적인 행보였는가? 신명기 사기는 이런 모호한 상황을 통해 내러티브의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킨다.¹³⁾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이미’와 ‘아직’의 삶을 감내해야 하는 환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비교되는 부분은 다윗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헤브론에 올라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주도로 ‘취함’(מָלַךְ)을 당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עָבַר) ‘왕으로 세움받았다’(מָלַךְ, 삼하 2:8-9)¹⁴⁾는 표현이다. 각각 하나님과 아브넬, 다윗과 이스보셋이 대칭을 이루며 유다

12) 특별한 명사가 없는 한 성서의 인용은 마소와 사본(MT)을 토대로 한 본인의 사역(私譯)임을 밝힌다.

13) Morrison과는 달리 이 부분에서 Auld는 실제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다윗 또는 이스보셋이 먼저 옹립되었을 가능성). 바흐친에 따르면 이런 불완전한 공백(gap)은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참여(filling)를 유도하며 본문과 대화적(dialogic) 공존 상태를 유발한다. 이 문예적 모호성은 오히려 극적인 긴박감을 더하며 독자를 내러티브로 흡인하는 효력을 내는 바 사무엘하의 신명기 사기는 이런 내러티브의 공백을 적극 활용한다. Morrison, *2 Samuel*, 37; Auld, *I & II Samuel*. 367; Sternberg,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186-90; Carol A. Newsom, “Bakhtin, the Bible, and Dialogic Truth,” *JR* 76.2 (1996), 290-306.

14) Firth, *1 & 2 Samuel*, 332.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장을 중심으로 한 분열된 나라의 형세가 이뤄짐을 볼 수 있다.

신명기 사가는 이스보셋이 ‘길르앗과 이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삼하 2:9)으로 추대되었다고 밝힌다. 여기서 길르앗이 ‘온 이스라엘’이란 요약적 표현이 담긴 구절의 서두에 언급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¹⁵⁾ 이스보셋이 길르앗 근접 지역인 마하나임에서 거주하게 된 배경에는 이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직후 암몬 사람 나하스의 선전포고(삼상 10:27-11:25)에 여호와와 신이 임하여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극적으로 구원했던 업적과 무관하지 않다. 그 당시 사울은 유다 지파 삼만 명의 10배 되는 삼십만의 군사력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동원하여 암몬 군대를 초토화함으로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삼상 11:11-15).¹⁶⁾ 사울이 전사한 후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용사들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32km나 되는 거리를 밤새 달려가 벤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야베스로 가져다 화장 후 뼈를 묻고 금식하며 애도하였다(삼상 31:11-13). 이제 막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왕은 사울 아래 과거 열배나 더 큰 세력을 구합했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친 베냐민 성향의 지파들을 지척에 두고 헤브론에서 본격적인 통치의 첫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실로 외형적인 조건으로 볼 때 다윗이 처음 전장에서 골리앗을 맞은 것과 같은 압도적인 열세의 형국에 처하게 된 셈이다.¹⁷⁾

15) Auld, *I & II Samuel*, 367.

16) McCarter, *II Samuel*, 87-88.

17) 독자들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통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거주했던 트랜스요르단(길르앗)과 이스라엘 북부지역의 군사 및 경제적 요충지인 이스라엘 평야에 걸쳐 지지기반을 다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McCarter, *II Samuel*, 87-88). 길갈이 아닌 마하나임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 보아 길보아 전투의 여파로 블레셋의 세력이 요르단 동쪽 지역에 확장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Campbell, *2 Samuel*, 33; Firth, *1 & 2 Samuel*, 333). 더 나아가 마하나임(‘쌍둥이/두 진영’)이 역사적으로 분쟁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다윗과 이스보셋을 둘러싼 종족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Bergen, *1, 2 Samuel*, 300). 이스라엘의 조상 아굽이 라반과의 마지막 쟁론을 뒤로하고 일생일대의 대면을 형 에서와 하기 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되는 곳이 마하나임이다(창

그 다음 단락에서(삼하 2:12-32) 이런 동족 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다. 아브넬이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기브온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곧바로 요압이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전진한다. 여기서 신명기 사가는 아브넬의 용사들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종들’(삼하 2:12)로, 요압의 용사들을 ‘다윗의 종들’(삼하 2:13)로 대비시키며 이들의 대면이 심상치 않음을 예시하고 있다. 과연 아브넬의 전운이 감도는 행동의 근거는 무엇인가? 다윗이 길르앗 아베스의 거민들에게 보낸 축사와 포상이 어느 정도 지파 간의 포용과 화합의 물꼬를 튼 것일까? 내러티브의 배열을 볼 때 다윗이 유희적인 메시지를 보낸 단락(삼하 2:4b-7)과 두 장군의 정면 대결(삼하 2:12)의 단락이 상황적 설명(삼하 2:8-11)을 중간에 두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¹⁸⁾ 길르앗은 아브넬이 주도한 이스보셋 왕정의 최대의 지지기반으로 다윗이 스스로 사울 왕조계를 잇는 적법자로 지칭하며 길르앗 아베스에게 보인 일련의 행보(삼하 2:4b-7)는 아브넬에게 있어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위협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부터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게서 친아들에게 넘어가는 형태의 세습 통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모두 소위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abnormal leadership transfer)’¹⁹⁾를 거쳤다. D. Jobling이 지적한 대로 아버지는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surrogate sons)과 같은 제3자를 다음 적임자로 인정하며 통치권이 넘어갔다.²⁰⁾ 예컨대 엘리의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삼상 1:3) 대신 사무엘이,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아(삼상 8:2) 대신 사울, 사울의 친아들 대신 사위 다윗에게 통치가 이양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아브넬의 섭정으로 점철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등장은 이스라엘에게 생소했을

32:1-2, Auld, *I & II Samuel*, 367).

18) McCarter, *II Samuel*, 94, 97.

19) David Jobling, *1 Samuel*,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8), 111-13.

20) Ibid.

것이며 적어도 다윗의 온건적인 태도는 과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장에 이끌고 ‘출입’하던 기억을 되살아나게 했을 것이다(cf. 삼하 5:2).

기브온 못가에서 대치하게 된 아브넬과 요압은 전면전을 치르는 대신 먼저 청년 열 두명의 용사들을 각 진영에서 불러내어 서로 겨루게(לְיָסִיקוּ לְפָנָיו), 삼하 2:14) 한다. 이는 단순한 검투 놀이가 아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연상시키는 진영 대 진영의 전투였다.²¹⁾ 도입부에서 본문이 아브넬에게 속한 12명의 용사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삼하 2:15). 결과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신호탄이었다. 각 진영의 젊은 투사들은 일제히 서로의 검에 맞아 쓰러졌고 그곳은 후대에 ‘칼날의 밭’(삼하 2:16)이라 명명된다. 그 날 해질 때까지 이어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혈투는 극심했으나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격파한다(삼하 2:17). 이사헬이 아브넬의 만류에도 위협하며 쫓아오자 창 뒤끝으로 밀어내 치려했지만,²²⁾ 그의 배를 관통하며 죽었고(삼하 2:23) 끊임없이 추격하는 요압과 아버새를 아브넬이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치자 전쟁은 요압의 나팔 소리로 종료된다(삼하 2:28).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삼키겠느냐? 나중에는 참혹한(מְרִיב, 직역: ‘쓰라린’)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네 무리에게 그들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삼하 2:26) 공교롭게도 아브넬의 이 외침은 앞으로 있을 요압의 무모한 칼의 학살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로에 대한 예견이 되어버렸다. 신명기 사기는 이 내전을 필두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다윗의 집은 더욱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더욱 약해졌다(삼하 3:1)고 결론짓는다.

21) Firth, *I & II Samuel*, 338; Morrison, *2 Samuel*, 39-40. F. C. Fensham은 흥미롭게도 히타이트 제국에 있었던 신들 앞에서 행해졌던 제의적 수난(ritual ordeal)으로서의 전쟁과 연결 짓는다. 승자는 신의 가호를 받고 패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다윗 군대의 승리는 여호와와의 선택을 의미한다. F. C. Fensham, “Battle between the Men of Joab and Abner as a Possible Ordeal by Battle,” *VT* 20:3 (1970), 356-57.

22) Bergen, *1, 2 Samuel*, 304.

2.1.2. 다윗과 요압의 역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분열의 골이 크고 깊어지는 와중에 다윗은 어떠한 강공책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신명기 사기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얻은 아내들과 자손을 이어 기술한다(삼하 3:2-5). 혹은 다윗이 신명기적인 왕의 이상형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²³⁾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내러티브의 틀에서 볼 때 근거가 약한 주장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한 다윗의 집의 강성함(삼하 3:1)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봄이 적합하다.²⁴⁾ 특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삼하 3:1, 6)는 표현이 다윗의 번성을 기록한 단락(삼하 3:2-5)을 감싸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울러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더 확고히 넓혀간다는 것과 사울의 첩을 취한 사건에 대한 이스보셋의 비난이다. 근동에선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에 준한다.²⁵⁾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안존하는 가운데 이론 번성과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도발적 이탈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바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에게 전달한 ‘은혜’(עֲנֵה, 삼하 2:5, 6)의 덕담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친족 및 지인들’에게 베푼 ‘은혜’(עֲנֵה, 삼하 3:8)를 언급한 회한의 성토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아브넬은 격노하며 자신을 한낱 ‘유다의 개 대가리’(삼하 3:8) 처럼 취급하는 무능력한 이스보셋을 버리기로 작정한다.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삼하 3:12) 넘길 제안을 하자 다윗은 전혀 미갈을 먼저 보낼 것을 당당히 요구한다. 아브넬의 엄연한 역모에 응한 것이

23) Robert B. Chisholm Jr., *1 & 2 Samuel*, TTCS (Grand Rapids, MI: BakerBooks, 2013), 202.

24) Bergen, 1, *2 Samuel*, 305. Bergen은 창세기 1:28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토라의 계명을 다윗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신명기 사가의 기술로 보고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근거가 약하다.

25)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Biblical Resource, trans. J. McHugh (Grand Rapids, MI: Eerdmans, 1958, 1960/1961, 1997), 116.

아니라 자신이 합법적으로 사울을 이을 후계자임을 드러낸 다윗의 응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그를 왕으로 세울 준비가 되었노라”고 하는(삼하 3:19) 아브넬을 환대하고 평안히 보낸다. 신명기 사기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3:21, 22, 23)²⁶⁾ 이를 보고 받은 요압이 통분히 여기는 이유를 강조한다.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 들어 쳐 죽임으로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처죽인 자신의 아우 아사헬의 원수를 갚는다. 하지만 헤브론은 세겜과 가테스 외에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세 개의 도피성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피의 보수자의 역할을 자처한 요압은 비고의적 살해자인 아브넬을 칠 당위성이 없었다(민 35:25).²⁷⁾ 여기서 신명기 사기는 후에 솔로몬이 요압을(왕상 2:31-33) 처단할 때 선언한 내용을 연상시키는 저주 문구를 다윗의 독백에 담는다(삼하 3:28-29).²⁸⁾ 다윗은 요압의 독단적인 보복 행위에 자신은 결백함을 주장하며 아브넬을 위해 금식하며 슬퍼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이를 보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그를 진폭적으로 지지하며 기뻐했다고 신명기 사기는 강조한다(삼하 3:36). 반면 요압이 다윗을 위해 출정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요압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압의 악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탄원한다(삼하 3:38).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하자 베냐민 지파의 두 형제 군장들이 침상에 누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나아오지만(삼하 4:7-8) 다윗은 사울을 죽인(삼하 1:2-16) 아멜렉 소년에게 한 것 같이 그들을 처단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로 골리앗의 머리, 사울의 머리, 이스보셋의 머리를 차례로 그 발아래 두게 된다.²⁹⁾ Gunn이 관찰한 대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그 형제 바야나의 고백(삼하 4:8)은 교차대구적 구조를 이룬다.³⁰⁾

26) McCarter, *II Samuel*, 117.

27) Bergen, *I, 2 Samuel*, 312.

28) McCarter, *II Samuel*, 118.

29)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34.

30) Gunn, *The Story of King David*, 120. a) 보소서 이스보셋의 머리이니이다, b) 사울의 아들, c) 당신의 생명을 노린 당신의 원수, d)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셨나이다, c) 이날에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내용인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셨나이다’(הַיְיָ יָתֵן), 삼하 4:8d)라는 표현은 사울의 집을 이김이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חַסֵּד, cf. 삼하 7:15)의 ‘선물’(תְּרוּמָה)임을 재차 강조한다.³¹⁾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와 그가 자신들과 골육지간이며 전장으로 출입했던 장군임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다(삼하 5:1-5). 다윗은 마지막 사울의 자손으로 언급된 요나단의 아들 르비보셋에게 ‘은혜’(חַסֵּד, 삼하 9:1, 3, 7)를 베풀며 절름발이인 그를 자신의 친아들과 같이 한 상에 앉힌다.

2.2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삼하 19-20장)

2.2.1.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립 관계

사무엘하 후반부(11-20장)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 도망한 후(15-16장)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19-20장).³²⁾ 유다와 베냐민 지파간의 갈등이 가장 격렬한 양태를 보인 때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막 건넌 후 길갈를 지나갈 시점이다(19장). 바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아와 왜 유다 사람들이 왕을 ‘훔쳐 갔는가’에 대한 격한 항의가 들어오자 유다 지파는 오히려 강경하게 맞선다.

내 주이신 왕께 원수를, b) 사울과, a) 그의 씨에게 (삼하 4:8).

31) Gunn, “David and the Gift of the Kingdom,” 14-45.

32) Gunn은 다윗의 예루살렘에서 도피 내러티브(삼하 15:13-16:14)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내러티브(삼하 19:15/16-20:3)가 주제적인 대칭을 이룬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David M. Gunn, “From Jerusalem to the Jordan and Back: Symmetry in 2 Samuel 15-20,” *VT* 30:1 (1980), 109-113.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아와 왕께 아뢰었다. “어찌하여(עַיְיִרָ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다윗과 함께 한 모든 장정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어찌하여(עַיְיִרָה)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분 내느냐? 정녕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라도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뿔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어찌하여(עַיְיִרָה)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느냐?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을 우리가 먼저 언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שָׁמַח). (『개역개정』, 삼하 19:41-43)³³⁾

‘어찌하여?’(삼하 19:41, 42, 43)로 시작되는 각 진영의 주장은 메아리처럼 반복되며 지파간의 상극적 이견이 좀처럼 해결점이 없음을 나타내 준다. 이스라엘이 왕에 대하여 ‘열 뿔’(삼하19:43)을 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 지파의 지분을 뜻한다(cf. 왕상 11:31, 35-36).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41절) 나아가는 것에 대해 왜 분통을 터트렸는가에 대한 질문이 야기된다. 바로 40절에 보면 유다지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다윗을 요단 서편으로 보내는데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친(親) 사울/베냐민 성향이 강한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강한 이의 제기가 일어났음을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르우벤과 갓 지파의 경지에 주거하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기억에는 사울이 유다 지파의 ‘열 배’나 되는(삼상 11:11-15) 군대를 소집하며 눈을 도려내겠다는 암몬 군대를 타파한 것이 각인되어 있었다.³⁴⁾ 길갈에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같이 다윗이 적법한 후계자라면 길갈을 어찌 스쳐 지나칠 수 있겠느냐 말이다. 이는 다윗 왕정 초기 시기에 아브넬이 다윗을 위해 온 이스라엘의 세력을 규합할 때 친 사울/베냐민계의

33) Cf. 19:42-44 (MT)

34) ‘열 뿔’의 개념은 유일하게 삼상 11:8 및 왕상 11:31, 35-36 과 연결된다. Auld, *I & II Samuel*, 560.

길르앗이 서두에 언급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삼하 2:8-9).

한편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국론 분열의 상황에서 다윗의 리더쉽은 보이지 않는다. 원문에 이스라엘의 항의는 다윗에게(‘어찌하여… 당신은…’, 삼하 19:41) 향하지만 정작 다윗은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유다 지파가 나서 대변한다.³⁵⁾ 여기서 독지는 다윗이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과한다.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이미 차별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삼하 19:11-15).³⁶⁾ 유다 지파의 강경함(גִּבּוֹר)이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란 난류 하나가 나팔을 불며 유다 지파의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노라 선포한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며 열 분깃을 주장하던 온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는 소극(笑劇)이 벌어진다. 가까스로 예루살렘에 도달한 다윗은 먼저 압살롬이 범한 열 명의 첩들을 따로 별실에 가두고 평생 과부로 지내게 한다(삼하 20:3). 세바의 반란(삼하20:1-2) 다음에 언급된 다윗의 후궁에 대한 처신(삼하 20:3)은 내러티브의 흐름에서 볼 때 상호 연계성을 가진다. Auld는 열 명의 첩과 열 지파의 몫에 대한 반복적 표현이 관련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후궁에 대한 구절이 쿨란 사본(4QSam^a)에는 생략되었는데 마소라 본문(MT)에 삽입된 구절(삼하 20:3)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이스라엘이 열 명의 첩과 같이 앞으로 버려지고 기억되지 않게 된 것을 강조한 후대의 가필(interpolation)이라고 주장한다.³⁸⁾ 그러나 바로 앞의 세바의 난(삼하 20:1-2)을 포함한 전체 내러티브의 흐름(삼하 19-20장)을 고려할 때 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열 명의 첩에 대한 다윗의 후처리는 직접적인 이유가 압살롬의 반역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스라엘 지파를 대변하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의 극한 대치 상황(삼하 19:41-20:2)에 들어간 이유가 다름 아닌 다윗에게 있음을 지시하고

35) Fokkelman, *King David*, 316; Firth, 490.

36) Fokkelman, *King David*, 316; Firth, 489.

37) Cf. 왕상 12:4(2x), 13

38) Auld, *I & II Samuel*, 562.

있다. Polzin은 더 나아가 아버가엘의 고백과 다윗이 첩을 격리해야만 했던 그의 말로가 교차한다고 본다.³⁹⁾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을 쫓아 당신의 생명을 찾으리라도 내 주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מִיְיָיְהוָה בְּצַדִּיק) 속에 싸였을(הָרָרָרָ) 것이요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때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라. (삼상 25:29)

아버가엘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삼상 25:29)라는 표현이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간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삼하 20:3)라는 표현에 ‘짜다, 가두다’(צָרָר)라는 어근으로 연결된다고 본다.⁴⁰⁾ 이 언어의 유희는 다윗의 삶에 ‘조여 올’ 상황에 대한 아버가엘의 예언적 선포가 일차적으로 다윗에게 이루어 짐을 나타내며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배로 인한 황폐함을 예시한다고 본다.⁴¹⁾ 그러나 Polzin의 주장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은 다윗의 생명이 그의 주(主)되신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라는 묘사가 어떻게 그의 첩들을 가두기까지 전락한 다윗의 처지를 아버가엘이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오히려 다윗의 후궁을 가두어 두었다는 언급에서 이 어근(צָרָר)의 사용은 신명기적 왕의 이상형에서 벗어난 다윗에 대한 반어적인 기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본문의 맥락(삼상 25:29)에서 ‘짜다’(צָרָר)와 ‘던져내다’(קָלַט)의 대비가 마치 여호와와 품에 안긴 다윗과 던져내어버린 원수와 비교되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⁴²⁾ 여호와와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은밀히 범함으로 백주에 자신의 후궁들 조차 지키지 못해 평생 가두어 두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유사한 반어적 문예 기법이 다윗의 우리아/밧세바 사건(11장) 이후를 기점으로 지속해서 다윗과 요압에 대한 기술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39) Polzin, 197-98.

40) Ibid.

41) Ibid.

42) Auld, *I & II Samuel*, 300.

43) 사무엘하의 도입부(삼하 2:8-5:3)와 왕위 계승 내러티브(삼하 9-20장; 왕상 1-2장)를

2.2.2. 다윗과 요압의 역할

사무엘하 후반부(11-20장)에 나타난 다윗에게 닥친 환란의 시작은 다윗이 밋세바를 범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삼하 11장). 우리아/밋세바와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헛 사람 우리아를 네가 칼로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삼하 12:9-10)

다윗의 죄목은 바로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요약된다. 즉 공권력을 동원하여 약자의 생명을 짓밟고 그의 기업(근동의 맥락)을 송두리째 탈취한 셈이다. 나단(‘그가 주셨다’⁴⁴)이 던진 심판의 메시지는 다윗이 권력자의 위치에서 자행했던 죄목들을 드러낸다. 우리아를 제거한 후 요압이 보낸 전령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심려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삼하 11:25) 다윗이 은밀히 요압에게 당부한 말이 선지자의 입에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삼하 12:10)라는 선포로 이어진다. 이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을 ‘삼킨’(לָכַס) 다윗의 칼이 자신의 집을 정조준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과 대치하게 되고 분열되는데

연결하는 단어의 중복에 대한 Gunn의 표를 참조. Gunn, *The Story of King David*, 120-121.

44) 나단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그가 주셨다’인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로 왕위를 ‘받은’ 것을 망각하고 이웃의 것을 탈취하려는 모순이 드러난다. 이스보셋의 군장들이 다윗 앞에 그의 목을 바치며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고백에 상치되는 행동을 선지자는 경고한다.

이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간의 내전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친 것처럼 같이 무차별 ‘삼키느’(לִאכֹּל) 참변(삼하 2:2)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다윗이 초기에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온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과는 첨예한 대비를 이룬다. 결국 다윗의 입술의 말대로 ‘마땅히 죽을 자’(삼하 12:15)가 된 다윗은 우리아와 그의 아내에 대한 죄값을 네 배나 치르게 된다. 먼저 밋세바와의 관계에서 생긴 첫아들을 잃고(삼하 12:19) 암논(삼하 13:33)과 압살롬(삼하 18:15) 및 아도니아(왕상 2:25)를 차례로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기 전의(11장) 다윗과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신명기 사기는 간간히 다윗을 어리석고 무력한 왕으로 그려 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다윗이 아브넬을 애도하면서 ‘어찌 하여 미련한 자(לְבַבִּי)의 죽음 같은고’(삼하 3:33)라 할 때만 해도 자신의 장자인 암논의 어리석음(לְבַבִּי)을⁴⁵⁾ 인하여—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하여—대성통곡(삼하 13:36, 39)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암논을 살해한 후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복귀한 후 왕권에 대한 야욕을 불태운다(삼하 15:1-6). 본문에 의하면 압살롬이 재판을 받으려 온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하여 서서히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다’(삼하 15:6) 한다. 그리고 4년 후 급기야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삼하15:12, 13)은 압살롬에게 기울어 버리고 헤브론에 내려간 압살롬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연출해 쿠데타를 일으킨다. 다급해진 다윗은 그의 신하들을 이끌고 피신하며 외치길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삼하15:14) 한다. 요단강을 건너 마나하임으로 피신한 다윗과 그의 일행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압살

45) 예전대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서 다말이 ‘이 어리석은 일을 행치 말라’(삼상13:12)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사무엘서에서 아비가일이 나발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라는 (삼상25:25) 표현과 원어적(לְבַבִּי)으로 연결되어 있다. 물론 다말의 표현은 다윗이 은밀히 주도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과 겹쳐진다. 왕위 계승 내러티브를 신명기 사가의 풍자로 본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Virginia Miller, *A King and a Fool: The Succession Narrative as a Satire* (Leiden: Brill, 2019).

롬의 군대는 헤브론에서 길르앗까지 따라와 진을 치기에 이른다(삼하17:26). 과거 적진의 장군인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 헤브론까지 올라와 온 이스라엘의 민심을 모아 다윗에게 화친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삼하 3:17-21)과는 대조적이다.⁴⁶⁾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민심을 훑쳐 간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마하나임에 다다른 사뭇 기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도 초기에 자신을 지지한 친 베냐민 지파의 길르앗에 압살롬이 주둔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이렇게 다윗의 집에 대한 ‘칼’의 심판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지탱한 지지기반의 균열 음을 시작으로 점진적이며 구체적인 분열로 가속화된다.

다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대항해 싸운다. 에브라임 숲에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났고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전투는 ‘온 땅 사방’으로 번져 나갔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다(삼하 18:6-8).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자(הלל, 삼하 18:10) 요압이 투창 세 자루로 그의 심장을 꿰뚫었고 요압의 젊은 장수 열 명이 쳐서 죽었다. 요압이 나팔을 분 후 이스라엘의 열 지파로 이뤄진 동맹군은 각기 장막으로 흩어지게 된다(삼하 18:9-18). 공교롭게도 다윗의 원수의 머리가 아닌 친아들의 머리가 종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⁴⁷⁾ 과거 이스보셋의 머리를 스스로 가져온 베냐민 군장들의 사족을 헤브론 못가 옆에 매단(הלל, 삼하 4:12) 다윗이 압살롬의 매달려(הלל) 죽은(삼하 18:10) 소식을 듣는다. 과거에는 다윗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원수’의 목이 전령에 의해 바쳐졌지만(삼하 4장) 이제는 그렇게도 신신당부하였건만 친아들의 목이 ‘원수’의 것으로 둔갑해 전령에 의해 보고되었다(삼하 18장). 그리고 다윗은 다시 친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대성통곡하게 된다(삼하 18:33).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삼하 18:33) 그러나 압살롬을 위해 통곡하는

46)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34.

47) Ibid.

다윗에게 목숨을 바쳐 싸운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에 요압은 격분하여 다윗에게 간언(諫言)한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심이다. 당신께서 오늘 알게 하신 것은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당신께 아무것도 아닌지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셨을 것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삼하 19:6-7)

요압의 서슬퍼런 경고는 다윗 왕조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한’ 상황은 무엇이겠는가? 문맥상으로는 다윗의 광야 도피 시절부터 혈맹으로 함께한 용사들의 신망을 잃어 야기될 가장 견고한 지지층의 와해일 것이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다윗의 모순적인 어리석은 행동은 그의 집을 넘어 그의 통일 왕국의 존립 기반마저 해체시킬 것이라는 요압의 예시적 충언이다. 흥미롭게도 그러는 사이 다윗은 사울의 종인 시바의 간교한 중상모략에 넘어가 자신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의 기업을 다 넘겨주는 오판을 하게 된다(삼상 18:1-4).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마중 나온 걸인의 물골을 한 므비보셋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되지만 자신의 상에 함께하게 했던 과거는 깨끗이 잊은 듯 시바와 기업을 나누게 하고는⁴⁸⁾ 발걸음을 재촉한다(삼하 19:24-30).

48) 다윗이 과연 므비보셋에게 정당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학자의 의견이 다양하다. 이런 모호한 귀결은 독자로 하여금 다윗의 통치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도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제된 ‘다성성(polyphony)’을 지지하는 의견은, Jeremy Schipper, *Disability Studies and the Hebrew Bible: Figuring Mephibosheth in the David Story* (New York: T&T Clark, 2006); idem, “Why Do You Still Speak of Your Affairs?: Polyphony in Mephibosheth’s Exchanges with David in 2 Samuel,” *VT* 54:3 (2004), 344-51; P. Kyle McCarter, *2 Samuel*,

각자의 장막으로 도망갔던 온 이스라엘은 국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삼하 19:9; cf. 삼하 18:17). 친 다윗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과거의 행적을 상기시키며 비록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압살롬이 전사했으니 당연히 다윗왕을 다윗성으로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삼하 19:10). 그러나 본문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라는 표현을 미루어 보아 좀처럼 그 방식과 절차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이 혼란스러운 정세의 와중에 다윗은 먼저 유다지파의 원로들에게 ‘골육지친’(עֲצָמִי וּבָשָׂרִי, 삼하 19:12/13 MT) 관계를 강조하며 다윗성으로 자신을 옹위해 데려가 줄 것을 청원한다. 그다음 다윗은 요압을 해임하고 아마사에게 다시 한번 ‘골육’(עֲצָמִי וּבָשָׂרִי, 삼하 19:13/14 MT) 관계임을 밝히며 다윗의 군대장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한다.⁴⁹⁾ 과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와 “우리는 왕의 골육이나이다”라고(וְהֵנּוּ עֲצָמֵיךָ וּבָשָׂרֵךָ אֲנַחְנוּ, 삼하 5:1)⁵⁰⁾ 고하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장면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성급히 일을 주도하면서도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는 커녕 오해를 시는 형국이다. 아마사를 통해 유다 지파의 민심을 끌어들이려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길갈에 도달할 즈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다윗과 유다 지파에 왜 독단적인 행보를 하느냐고 강력한 항의를 하게

422; J. Rosenberg, *King and Kin: Political Allegory in the Hebrew Bible* (Bloomington, 1986), 161-62; H. Hagan, “Deception as Motif and Theme in 2 Sm 9-20; 1 Kgs 1-2,” *Bib* 60 (1979), 318. 다양한 학계의 의견은 다음을 참조. S. Lasine, “Judicial Narratives and the Ethics of Reading: The Reader as Judge of the Dispute Between Mephibosheth and Ziba,” *HS* 30 (1989), 59-60.

49) 다윗은 여기서 압살롬의 반란때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던(삼하 15:27-28)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삼하 19:11) 압살롬을 지지하던 유다지파의 원로들과 아마사에게 정치적 입지를 마련해 주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다. Morrison, *2 Samuel*, 255. 다윗의 이런 회유책은 초기 기르앗 아베스 거민(삼하 2:4b-7)에게 보인 것 과 유사해 보이지만 다윗의 파벌주의적인 처세술은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50) Ibid.

된다(삼하 19:41-43). 다윗의 정파적인 해결 방식이 결국 압초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베냐민 사람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한 국가적 과밀을 통일 왕국에 초래할 것을 인정한다(삼하 20:4-6). 다윗의 예견은 훗날 르호보암이 억압받는 건설 노동계의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수용하지 않자 노역의 수석 감독인 여로보암이 공포한 반역의 외침에 그대로 반영된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에게 무슨 지분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너희의 장막으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다윗이여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왕상 12:16)

흥미롭게도 베냐민 지파를 앞세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의 격한 충돌(삼하 19:41-43; 20:1-2)과 여로보암의 난(왕상 12:1-19)의 내러티브 접촉점은 ‘힘들다/중하다/엄하다’(𐤇𐤍𐤔)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루어진다.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의 노동계는 고역의 멍에가 솔로몬 때부터 심히 ‘무겁다’(𐤇𐤍𐤔, 왕하 12:4)고 호소하였으나 르호보암은 포악한(𐤇𐤍𐤔, 왕상 12:13) 말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르호보암의 ‘포악함’은 이전 다윗의 때에 유다 지파의 ‘강경함’(𐤇𐤍𐤔, 삼하 19:43/44)의 표현에서 어원을 같이 한다. 이 어원은 이전 요압과 아브넬이 기브온에서 다윗과 시울의 이름으로 격돌할 때 이스라엘의 내전이 심히 ‘격렬했다’(𐤇𐤍𐤔, 삼하 2:17)는 상황과도 연결된다. 또한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의 맹렬함이 감당하기 ‘힘들다’(𐤇𐤍𐤔, 삼하 3:39)는 표현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아/밧세바 사건의 전과 후의 다윗의 위치는 다르다. 전에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𐤇𐤍𐤔, 삼하 2:17; 3:39)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을 자신의 편으로 얻게 되었으나, 후에는 자신의 모든 책략을 동원해도 온 이스라엘이 서슴없이 돌아서(삼하 20:3)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약속한 삼일의 기일 안에 유다 지파의 세력들을 모아 오기로 한 아마사가 돌아오지 못하자 다급해진 다윗은 경질한 요압 대신 요압의 아우

아버새를 불러 세바를 쫓아가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자충수를 둔다. 이제 막 내전을 종식한 상황에서 다시 베냐민의 세바를 처단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무리 유다 지파 족속이라 할지라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본문에는 아버새에게 명령이 떨어졌지만, 출정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용사 즉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하 20:7). 그 당시 군대의 실세가 특전사 정예 부대를 방불케 하는 요압의 용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⁵¹⁾ 어느새 본문은 요압이 군대를 이끌며 베냐민 지파의 난류 세바를 추격하는 장면을 그린다. 요압 군대가 기브온에 이르러 아마사를 바로 마주치게 된다. 내러티브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친 사울계와 친 다윗계 군대가 처음 전면전을 시작하게 된 기브온에서⁵²⁾ 데자뷔(déjàvu)를 연출한다. 다윗이 이전 헤브론에 있을 때 직면한 이스라엘의 적전 분열의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이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한 것(וַיִּשְׁלַח, 삼하 3:27; cf. 2:23)과 같이 거침없이 다윗이 임명한 아마사의 ‘배’를 찢러 쓰러뜨린다(וַיִּשְׁלַח, 삼하 20:10). 과거 은연중에 이스보셋의 ‘배’가 칼에 찢린 후(וַיִּשְׁלַח, 삼하 4:6) 그 머리가 다윗에게 바쳐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칼잡이였던 요압이 사정없이 자신의 심복(心腹)을 찢는 화의 도구가 되어버린 격이다.

한편 세바는 추격하는 요압의 군대를 피해 단 지파의 아벨성까지 내려가 성안에 피신하게 된다. 요압은 기세를 몰아 아벨성을 성벽 공격용 사닥다리 (siege ramp)을 동원해 무너뜨리려 한다. 그때 아벨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외치길 “들으시오 들으시오(שְׁמַעוּ שְׁמַעוּ) 요압에게 전해 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고하기 원하니 이리로 나오시오!”(삼하 20:16)라 하니 요압이 순순히 성벽에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도권을 잡고 요압에게 이른다. 여기서 여인의 질문과 요청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요압이 회화적이다.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렇다.” “당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듣고 있다.”

51) Robert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NY: W. W. Norton, 1999), 323.

52) Ibid.

(삼하 20:17) 그 지혜로운 여인은 다음과 같이 차분히 설명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와 기업을 삼키고 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라!” (삼하 20:19-20)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한 세바를 제거하려 아벨성을 함락하려고 하자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은 왜 요압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같은 성이요 여호와와의 기업인 아벨을 ‘삼키고자’(שָׁקַט)하는지 항의한다. 여기서 요압이 성벽 앞에서 여인의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다윗이 이전 우리아를 제거하려 요압에게 작전 지시를 내릴 때의 사건을 연상시킨다.⁵³⁾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였느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쪽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하라. (삼하 11:21)

여기서 과거 데베스의 성벽에서 맷돌 위쪽을 던져 성읍을 구한 여인과 아벨의 성벽에서 외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기개가 중첩된다. 이렇게 다윗이 밋세바와의 일을 은폐하려 요압을 시켜 성벽에서 우리아 및 다윗의 종들의 무고한 생명을 해한 장면(삼하 11:17)과 다윗을 대적한 세바를 제거하려 요압이 아벨 성벽을 공격하며 성읍 주민들을 위협하는 장면(삼하 20:15)이 연결된다. 결국 이 모든 소요의 원인은 세바가 아닌 다윗 자신이라는 점이 아벨의 여인의 선지자적 선포에서 드러난다. 어머니의 품 같이 ‘생명 싸개’로 다윗을 감싸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여호와와의 기업을 ‘삼키고 멸하려’ 했던 다윗의 죄가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53) Campbell, S.J., *2 Samuel*, 170.

이는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예언적 선포의 성취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변질하였는지 단면을 보여준다. 한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한 요압이 세바의 목을 베어주길 요청하자 아벨 성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전쟁은 그치게 된다. 사무엘하 20장 마지막 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정권을 주도하게 되는데(23절) 다윗이 아도니람을 부역 감독관을 임명한다는 언급(24절)은 장차 일어날 분열 왕국의 서곡으로 기능한다.⁵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한 후 성전 노역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포악한’ 말로 묵살하자 온 이스라엘이 아도니람을 돌려 처죽인 후 여로보암을 추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분열 왕국의 탄생을 초래하게 된다(왕상 12:18).

3. 신학적 함의에 대한 고찰

3.1. 내러티브의 문예적 관점에서

친 다윗계를 주축으로 한 유다 지파와 친 사울계의 베냐민 지파를 선두로 한 이스라엘의 대립은 다윗의 우리아/밧세바 사건 이전(삼하 2-5)과 이후(삼하 19-20)로 크게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지파간의 분쟁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기술이 다윗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윗이 초기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의 상황과 후기에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아래 표 참조) 전자에는 다윗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후자에는 다윗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소요와 반역이 있었다.

54) Morrison, *2 Samuel*, 274.

	헤브론	마하나임	기브온	지혜의 여인들	다윗의 예루살렘 입성
우리아 사건 이전	다윗	이스보셋	요압과 아브넬	아비가일(나발)	온 이스라엘의 통합
우리아 사건 이후	압살롬	다윗	요압과 아마사	아벨성의 여인(세바)	온 이스라엘의 분열

그렇다면 문예적인 관점에서 신명기 사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친 다윗(유다 지파) 세력과 친 사울(베냐민 지파) 세력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국론 분열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대두된다.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구조적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분열 촉매제가 다윗이 우리아를 무고히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에서 기인한다. 물론 우리아 사건 이전에도 분쟁의 양상은 있었으나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적장 아브넬의 주도로 온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윗의 ‘골육지친’(삼상 5:1)이라고 백하며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된다. 실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형제 지파에게 선제적 군사 행동을 취한 적은 없다. 오히려 헤브론에서 안거(安居)하며 요압을 포함한 스루야의 아들들의 맹렬함에 대한 거리를 둔다. 신명기 사가는 다윗이 친 사울계의 길르앗 아베스 거민들에 대해 회유책을 쓰고 사울의 딸인 미갈을 다시 불러들이며 사울의 손자인 므비보셋을 선대 하는 등 다양한 유화 정책을 견지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는 여호와의 손이 아브넬을 격동시키고 그가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가운데 다윗을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추대하게 한 것임을 확고히 드러내 준다. 바로 유다 지파의 주장인 다윗과 친 사울계 베냐민 지파와의 상극적 관계의 틀 안에서 엿보이는 이들의 상생적 공존은 여호와의 ‘은혜’(חֶסֶד)로 말미암았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은 Gunn이 제시한바 그의 왕국(‘온 이스라엘’)을 선물로 ‘받았다’(קָבַץ, 삼하 4:8)는 것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베냐민 군장들의 입에서 최후로 증언된다. 결국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삼하 7:15)를 받아 그 ‘은혜’(삼하 2:5, 6; 9:1, 3, 7; cf. 삼상 20:14, 15)를 흘러내려 보내며 여호와의 ‘생명 싸개’(삼상 25:29) 안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반면 우리아 사건 후에 다윗의 행적은 그 전과 확연히 대비된다. 특히

자신을 위해 싸웠던 요압의 칼이 다윗의 집을 ‘삼키는’ 화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다윗은 친이들 압살롬에 대한 처신으로 가장 두터웠던 지지기반을 거의 잃어버릴 뻔한 지경에 이른다. 황급히 유다 지파의 아마사와 장로들에게 ‘골육’(삼하 19:12, 13)이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그의 정파적인 해결 방식이 돌이킬 수 없는 국론의 분열을 초래한다. 우리아 사건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이 다윗을 기뻐하였지만(삼하 3:36), 그 사건 후에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들이 다윗의 발목을 잡았다.

사무엘하의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편협한 이슈를 넘어 그러한 국론적 분열의 근원적 진단에 있다. 다시 말해서 독자는 다윗이 권력자의 위치에서 보인 횡포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경멸과 그의 목전의 악’으로 간주하신다는 나단(‘그가 주셨다’) 선지의 선포에 귀 기울여야 한다(삼하 12:9). 모세는 신명기적 왕의 이상형에 대한 설교에서(신 17:14-20) 이스라엘 왕이 장구한 통치를 위해서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20절) 말 것을 경고한다. 여기서 ‘그의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이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왕은 약자를 돌아보는 겸비한 마음으로 언약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의 왕위가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아벨 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의 외침에서 재확인된다. 그녀는 “들으시오 들으시오!”(삼하 20:16)라고 외치며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려는 요압의 칼을 잠시 멈추게 한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왜 무모히 행하냐는 것이다. 독자는 요압의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삼하 20:20)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진정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 성벽에 있는 여인의 모티브로 이 사건이 다윗이 요압을 시켜 성벽에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연결된다면 분열 왕국의 궁극적인 책임은 세바가 아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cf. 삼하 4:8, $\text{וַיִּהְיֶה הַיּוֹם הַהוּא} \text{ וַיִּהְיֶה הַיּוֹם הַהוּא}$) 우리아의 기업을 삼킨 다윗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이란 단어는 북 이스라엘 왕국의 최대 번영 시기를 주도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나봇의 '기업'을 삼킨(왕상 21:4) 죄목으로 멸망을 자초한 것을 상기시킨다. 사무엘하 본문(삼하 20:1, 24)은 다윗이 세바를 무력으로 진압시켰음에도 분열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명시한다. 이후 다윗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 한 세대를 넘지 못하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로 구성된 노동계의 반란으로 분열 왕국으로 나뉘게 된다. 결국 신명기 사가가 밝히는 국론적 갈등과 분열의 주된 원인은 쉘마(들으라)의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소위 갑의 계층에 있는데 다윗의 경우 '이웃 사랑'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한다면(신 6:4-6)─바꾸어 말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라면(신 5:10; cf. 삼하 4:8)─이름 없는 약자의 외침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포로기 전 선지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으며⁵⁵⁾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정황과 신학적 궤적을 같이 한다.

3.2. 한국 교회의 정황에서

국론적 갈등과 분쟁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상기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소위 우파와 좌파의 진영 논리를 떠나 좀 더 근원적인 신학적인 진단과 처방을 한국 사회에 외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가 기득권층에 속해 있다면 진정 쉘마의 언약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자가 점검을 통해 반추해 보고 과감한 개혁을 일궈내야 한다. 신명기 사가는 약자에 대한 억압을 그려 내는 것에 추상적이지 않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동원한 인격 살인, 협박, 갈취, 사기, 언어 및 성폭력 외에 노동 착취와 억압, 부동산 투기, 횡령, 사치 등 우리 사회 저변에 피어나는 죄의 누룩들이 어느새 교회

55) 예. 암 3:9; 4:1; 5:11, 21-25; 6:1; 8:5; 미 3:3, 9-10; 사 3:14; 5:8; 11:6-9; 29:20-21; 렘 22:15-16; 겔 18:5-9.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회개의 애통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기반과 존속은 정치적인 책략 또는 무력이나 자본의 우위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렸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공평과 정의를 사회 저변에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에 선봉장이 되어 선지자적인 선포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며 말보다는 실천적인 개혁 운동을 일궈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4.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사무엘서에 나타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과 분쟁 내러티브(삼하 2:1-5:5; 19:1-20:26)를 비교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문예적 관련성을 살펴보고 신학적인 함의를 고찰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의 내러티브(삼하 2-5장)에서 일어난 지파간의 분열과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의 내러티브(삼하 19-20장)에서 일어난 지파간의 분열은 구조적이고 주제적인 연관성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아에 대한 범죄(삼하 11장)가 축이 되어 이전과 이후로 다윗에 대한 묘사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파간의 극한 대립의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화해와 통합의 물꼬를 트이지만 이후에는 다윗의 능동적인 막후 작전에도 불구하고 지파간의 대립과 분열이 극에 달한 점이다. 이런 문예적 배치는 지파 간 분열의 근원적인 원인이 다윗의 죄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쉼마의 언약적 사명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즉, 참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길이며 쉼마(들으라!)의 두 축을 무시한 언약 공동체는 더 이상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통일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며 이뤄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음을 반증해 준다.

<주제어>

사무엘하 2:1-5:5; 19-20장), 지파간 분쟁,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갈등, 대립, 다윗, 교회와 정치, 국론 분열

<Key Words>

2 Samuel 2:1-5:5; 19-20, tribal strife, Judah, Benjamin, conflict, opposition, David, church and politics, national schism

* 접수일 2020년 3월 20일, 수정일 2020년 4월 7일, 게재 확정일 2020년 4월 16일

참고문헌

- 김지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스 4:1)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10 (2001), 85-101.
- 김지찬, 「내러티브 해석학으로 본 사무엘서 기록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김진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사무엘서」,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1.
- 이창엽,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대상 9:35-38, 참조 대상 8:29-32),” 「구약논단」 20:2 (2014), 73-93.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1983.
- _____,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NY: W. W. Norton, 1999.
- Amit, Yairah, “The Saul Polemic in the Persian Period,” Pages 647-62 in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Edited by Oded Lipschits and Manfred Oeming, Winona Lake: Eisenbrauns, 2006.
- Anderson, A. A., *2 Samuel*, WBC 11, Dallas, TX: Word Books, 1989.
- Arnold, Bill T., *1 and 2 Samuel*, NIVAC 19,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3.
- Auld, Graeme A., *I & II Samuel*, OTL, Louisville, KY: WJK, 2011.
- Bergen, Robert D., *1, 2 Samuel*, NAC 7,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2002.
- Berger, Yitzhak, “The David-Benjaminite Conflict and the Intertextual Field of Psalm 7,” *JSOT* 38:3 (2014), 279-96.
- Berlin, Adele,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Press, 1983.
- Blenkinsopp, Joseph, “Another Contribution to the Succession Narrative Debate (2 Samuel 11-20; 1 Kings 1-2),” *JSOT* 38:1 (2013), 35-58.
- Brueggemann, Walter,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 Campbell S. J., Antony F., *2 Samuel*, FOTL 8,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2005.
- Chisholm Jr., Robert B., *1 & 2 Samuel*, TTCS, Grand Rapids, MI: BakerBooks, 2013.
- Conroy, Charles, *Absalom, Absalom!: Narrative and Language in 2 Sam 13-20*, AnBib 81,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8.
- Phillip R. Davies, "The Trouble with Benjamin," Pages 93-111 in *Reflection and Refraction Studies in Biblical Historiography in Honour of A. Graeme Auld*, Edited by Robert Redetko et al., VTSup 113, Leiden: Brill, 2007.
- De Vaux, Roland,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s*, Biblical Resource, Translated by J. McHugh, Grand Rapids, MI: Eerdmans, 1958, 1960/1961, 1997.
- Eslinger, Lyle M., *Kingship of God in Crisis: A Close Reading of 1 Samuel 1-1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5.
- Fensham, F. C., "Battle between the Men of Joab and Abner as a Possible Ordeal by Battle," *VT* 20:3 (1970), 356-57.
- Firth, David G., *1 & 2 Samuel*, AOTC 8,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9.
- Fleming, Daniel E., *The Legacy of Israel in Judah's Bible: History, Politics, and the Reinscribing of Tra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Fokkelman, J. P.,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Volume I, King David (II Sam. 9-20 & I Kings 1-2)*, SSN 20, Assen: Van Gorcum, 1981.
- _____, *Volume II, The Crossing Fates (1 Sam. 13-31 & II Sam 1)*, SSN 23, Assen: Van Gorcum, 1986.
- _____, *Volume III, Throne and City (II Sam. 2-8 & 21-24)*, SSN 27, Assen: Van Gorcum, 1990.

- _____, *Volume IV. Vow and Desire (1 Sam. 1-12)*, SSN 31, Assen: Van Gorcum, 1993.
- Giffone, Benjamin D., *'Sit at My Right Hand': The Chronicler's Portrait of the Tribe of Benjamin in the Social Context of Yehud*, LOHB/OTS 628, New York, NY: Bloomsbury, T&T Clark, 2016.
- Gunn, David M., "David and the Gift of the Kingdom (2 Sam 2-4, 9-20, 1 Kgs 1-2)," *Semeia* 3 (1975), 14-45.
- _____, *The Story of King David: Genre and Interpretation*, JSOTSupp 6, Sheffield: JSOT Press, 1978,
- _____, "From Jerusalem to the Jordan and Back: Symmetry in 2 Samuel 15-20," *VT* 30:1 (1980), 109-113.
- Hagan, H., "Deception as Motif and Theme in 2 Sm 9-20; 1 Kgs 1-2," *Bib* 60 (1979), 301-26.
- Jobling, David, *The Sense of Biblical Narrative: Structural Analysis in the Hebrew Bible II*, JSOTSupp 39, Sheffield: JSOT, 1986.
- _____, *1 Samuel*,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MN: Liturgical, 1998.
- Lasine, S., "Judicial Narratives and the Ethics of Reading: The Reader as Judge of the Dispute Between Mephibosheth and Ziba," *HS* 30 (1989), 44-69.
- Levin, Yigal, "Joseph, Judah and the 'Benjamin Conundrum,'" *ZAW* 116 (2004), 223-41.
- McCarter Jr., P. Kyle, *II Samuel*, AB 9, New York, NY: Doubleday, 1984.
- McKenzie, Steven L., "The So-Called Succession Narrative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ges 123-35 in *Die sogenannte Thronfolgeschichte Davids: Neue Einsichten und Anfragen*, Edited by Albert de Pury and Thomas Römer, OBO 176, Freiburg, Schweiz: Academic Press, 2000.
- Miller, Virginia, *A King and a Fool?: The Succession Narrative as a Satire*, Leiden: Brill, 2019.

- Miscall, P. D., *1 Samuel: A Literary Read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Morrison, Craig E., *2 Samuel*,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MN: Liturgical, 2013.
- Na'aman, Nadav, "Saul, Benjamin and the Emergence of 'Biblical Israel' (Part I)," *ZAW* 121:2 (2009), 211-24; (Part II) *ZAW* 121:3 (2009), 335-49.
- Newsom, Carol A., "Bakhtin, the Bible, and Dialogic Truth," *JR* 76:2 (1996), 290-306.
- Park, Song-Mi Suzie, "Left-Handed Benjaminites and the Shadow of Saul," *JBL* 134:4 (2015), 701-20.
- Polzin, Robert, *Samuel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wo: 1Samuel*, ISBL,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1 Samuel: Biblical Studies and the Humanities," *RSR* 15 (1989), 297-306.
- _____, *David and the Deuteronomist: A Literary Study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Part Three: 2 Samuel*, ISBL, Bloomington: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Quine, Catherine, "Reading 'House of Jacob' in Isaiah 48:1-11 in Light of Benjamin," *JBL* 137:2 (2018), 339-57.
- Rosenberg, J., *King and Kin: Political Allegory in the Hebrew Bible*, Bloomington, 1986.
- Rost, Leonhard,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Translated by Michael D. Rutter and David M. Gunn, Historical Texts and Interpreters in Biblical Scholarship 1, Sheffield: Almond Press, 1926/1982.
- Schipper, Jeremy, *Disability Studies and the Hebrew Bible: Figuring Mephibosheth in the David Story*, New York: T&T Clark, 2006.
- _____, "Why Do You Still Speak of Your Affairs?: Polyphony in Mephibosheth's Exchanges with David in 2 Samuel," *VT* 54:3

(2004), 344-51.

Seters, John Van, "A Revival of the Succession Narrative and the Case against It," *JOT* 39:1 (2014), 3-14.

Sternberg, M.,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초록>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분쟁에 나타난 상생과 상극

-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 여정의 신학적 재고(삼하 2:1-5:5; 19-20장) -

안한나

(헝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의 국론적인 갈등과 분쟁은 사무엘하의 도입부(2-5장)와 결론부분(19-20장)을 에워싸면서 전체 내러티브 구조의 긴장감을 지탱한다. 전반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곧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 일어난 상황이고, 후반부는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특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11장)을 기점으로 대립의 양상과 해결이 전과 후 다른 역동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는 미미하다. 본 논문은 문예적인 관점에서 상기 두 지파간의 이견과 상황 전개를 비교 대조하여 신명기 사가가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본 후 신학적인 함의를 고찰한다. 구조적인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헤브론과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설적인 왕의 이동들과 기브온에서 펼쳐지는 각 지파의 군장들의 전면전이다. 이런 구조적인 틀 아래 드러나는 문예적인 강조점은 지파 간의 분열에 대한 신명기 사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의 근본적인 진원지는 쉰마의 언약적 사명을 감당치 못한 다윗 자신이며 통일 왕국의 존속 기반은 오직 여호와와의 주권적 은혜에 달렸고 그의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살림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Intertribal Strife along David's Route to Jerusalem:
A Narrative Reading of the Judah-Benjamin Détente and
Conflict (2 Sam 2:1-5:5; 19-20)**

Hannah S. An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The account of tribal strife between Judah and Benjamin conspicuously marks the beginning (2 Sam 2-5) and the ending (2 Sam 19-20) of 2 Samuel. The former account is part of the narrative of David's journey to kingship over all Israel from Hebron to Jerusalem, and the latter occurs during David's flight to Mahanaim and his return to Jerusalem. The dynamics of tribal conflict and its resolution varies before and after the pivotal incident of David's affair with Bathsheba (2 Sam 11). This article attempts to trace the Deuteronomist's portrayal of David by juxtaposing it with the narrative accounts of tribal strife between Judah and Benjamin (2 Sam 2:1-5:5; 19-20) and drawing theologic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application in S. Korea. The structural correspondences between these narrative units point to the ironic displacement of kings between Hebron and Mahanaim and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commander of each tribe. The literary emphasis that emerges under this structural arrangement suggests that David himself—who failed to carry out the covenantal duty of the Shema (Deut 17:14-20)—is responsible for the intense conflict and schism of all Israel. This in turn highlights that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united monarchy is contingent upon Yahweh's sovereignty and Israel's manifestation of His loving rule over the oppressed. In this regard, the establishment of Yahweh's justice and

righteousness within the marginalized and fragmented Korean society is critical for the ultimate unification of Korea. To this end, Korean churches must play a leading role in initiating the reform movement as a catalyst by harkening to Deuteronomist's message for all Israel.